

지역 소식통

부안군, '행복두끼 프로젝트' 전달식 개최

부안군은 18일 SK매직, (사) 달로이트 한마음나눔, 행복나래 주식회사, 백산농두꽃사회적협동조합 등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와 함께 관내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행복두끼 프로젝트'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한동일 부안군 관광복지국장, 김승희 SK매직 영업실 실장, 김서경 서부6총국장, 이선주 정읍지국장, 한다래 달로이트 한마음나눔 사무국장, 임은미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 실장, 박천호 백산농두꽃사회적협동조합 등 기관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지원은 우리군 결식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주 5식 기준, 약 1년동안 약 13,000식의 영양가 높은 밀반찬 도시락을 제공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

정읍시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등급제 컨설팅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에 참여할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7개소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홍보하는 제도로, 3개 위생분야 64개 항목의 평가를 거쳐 매우우수, 우수, 좋음 3개등급을 부여한다.

시는 컨설팅 희망업소를 선정해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 직접 업소를 방문해 위생적 취급기준, 사전 모의평가, 신청 절차 안내 등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컨설팅을 해줄 계획이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2년간 △지정서 및 표지판 교부 △지정기간 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출입·검사 면제 △위생용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컨설팅 희망업소는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시 보건소 보건위생과를 방문하거나, 팩스(063-539-6631)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천연기념물 서식처 보존관리

고창군, 고창갯벌 주요철새 서식지 상하면 자룡리 일원 중심... 안전펜스와 안내판 설치

고창군이 고창갯벌 천연기념물 서식처 보존관리 사업에 착수했다.

18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갯벌은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종의 철새를 근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어 전국의 탐조전문가들을 비롯한 수많은 관광객들이 매년 찾아오고 있다.

하지만 접근이 쉬운 만큼 인위적 환경에도 쉽게 노출돼 철새 서식지의 훼손과 철새 개체 수 감소 등의 우려가 커져왔다.

이에 고창군은 주요철새 서식지(상하면 자룡리 일원)를 중심으로 관광객의 과도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펜스와 안내판을 설치했다.

아울러 철새 집중도래 시기인 4~6월 중에는 철새지킴이 인력을 배치해 인위적인 간섭이나 방해 없이 철새들이 머물 수 있는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창갯벌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 서식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7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고창갯벌에는 황새, 뿔제비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등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하여 160여 종 10만여 마리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창군 최초로 고창갯벌

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황새(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가 새끼를 낳는데 성공했다.

또 전세계적으로 100여 마리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뿔제비갈매기(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도 꾸준히 관찰되고 있다.

오미숙 고창군 관광산업과장은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보존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도민 중심, 지역맞춤형 범죄예방사업'에 부안군 서림공원 일대가 최종 선정됐다.

지역맞춤형 범죄예방사업 선정

부안군-부안경찰서, 안전한 서림공원 환경 조성 추진

부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범죄예방분야 공모사업에서 '도민 중심, 지역맞춤형 범죄예방사업'에 서림공원 일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민 중심, 지역맞춤형 범죄예방사업'은 지역 내 주민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에 보안등, 로고젝터 등 맞춤형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하고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지인 서림공원은 부안 도심권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는 도시공원이자 산림청 지정 산림문화자산으로서 향토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공원이다.

그러나 자연산체에 조성된 넓은 면적의 자연공원이다보니 공원규모와 자연환경 특성상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정이다.

이에 부안군은 부안경찰서와 협업하여 서림공원 일원에 대하여 범죄예방 분석을 실시하여 공모에 참여하였고, 공모심사 결과 부안군을 포함한 5개 시군이 범죄예방분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부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총사업비 3억원 중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부안군은 부안경찰서와 공원 이용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원 내 사각지대와 우범지역에 대하여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공원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관악현 부안군수는 "주민들이 야간에도 안심하고 서림공원을 산책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중후함 속 화려함'... 김명관 고택서 본 정읍의 봄

국가민속문화재 26호

따스한 봄비가 내리치는 4월의 어느 날, 정읍 김명관 고택에도 봄이 아늑하게 찾아왔다.

아흔이홉 칸의 집으로 알려진 김명관 고택은 국가민속문화재 26호로, 1784년 정조 8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한옥 주택이다.

청하산을 병풍 삼아 앞으로는 동진강 상류의 맑은 물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풍수지리 조건을 갖추고 있다.

행랑채와 사랑채, 안행랑채, 안채, 별당 등 중후하면서도 소박한 멋을 뽐내는 김명관 고택.

고풍스러운 전통 한옥의 뒷마루에 앉아 바라보는 봄의 풍경은 한편의 그림을 보는 듯 아름답다.



국가민속문화재 26호 김명관 고택

(사진=정읍시청 제공)

영산홍과 금낭화, 동백꽃, 자목련 등 각자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봄꽃은 빛

기와의 비교돼 화려함을 더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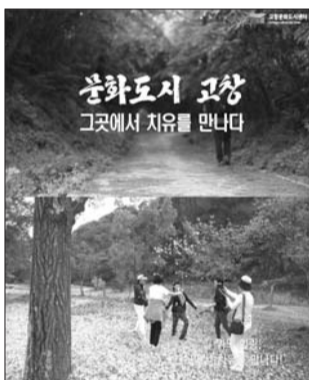
고창군 치유문화 다큐멘터리, 아리랑TV 통해 세계 곳곳 방영

20~21일 운곡습지 등 소개

치유문화도시 고창군의 치유 콘텐츠가 아리랑 TV를 타고 국내 방영과 동시에 해외로 뻗어나간다.

18일 고창군에 따르면 다큐멘터리 '문화도시 고창 그곳에서 치유를 만나다'를 오는 20일과 21일에 아리랑 TV 채널에서 방영한다.

치유문화 다큐멘터리는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됐고, 치유문화도시 고창의 스토리와 치유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들을 담았다.



영상에는 고창의 치유자원 중 운곡습지, 치유마을, 치유농업 등 치유문화 산업 주요사례와 콘텐츠가 포함됐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고창이 지닌 치유문화의 가치를 소개하고, 고창의 다채로운 문화와 자연경관, 고창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치유의 에너지를 전한다.

치유문화 다큐멘터리는 'Arirang Korea', 'Arirang World', 'Arirang UN' 3개 채널에 편성되며 오는 20일(오전 10시30분, 오후 9시), 21일(오후 7시)에 3차례 방영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평생교육 진흥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정읍시에서 평생교육 진흥 프로그램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친환경 교육 지도사 양성과정 25명, 바리스타 양성과정 15명 등이다. 정읍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친환경 교육 지도사 양성과정은 친환경 교육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자연환경을 생각한 친환경제품 제작, 재활용 공예 활동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활용·지도 능력을 갖춘 특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바리스타 양성과정은 바리스타와 관련한 기본 지식과 전문적인 실습 과정으로 커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관련 직종 취·창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총 20차시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이다.

접수는 인터넷과 방문으로 가능하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시 평생학습관(중앙2길 22)에서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정원 마감 후에는 방문 접수해 대기번호를 받을 수 있다.

수강료와 재료비는 무료이며, 자격증 전형료는 교육생이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평생교육 진흥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취·창업의 기회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